



선진미술관에서 배운다 유럽편

12 마드리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스페인 현대미술 메카...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만나다



마드리드=정성필 E투코리아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국립 미술관(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ia)은 스페인 최대 미술관인 프라도 미술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과 프라도 미술관은 엄청난 규모의 개인 소장품을 기증받아 건립된 티센 보르네미자 미술관과 함께 마드리드의 중심인 시벨레스 광장과 프라도 대로를 중심으로 '예술의 골든 삼각지대(Golden Triangle of Art)'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프라도 미술관이 중세에서 19세기까지의 스페인 미술을 전시하고 있다면,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1900년부터 현대까지 작품들을 주로 보여준다.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1881~1973)를 비롯한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1904~1989), 후안 미로(Joan Miro·1893~1983) 등 20세기를 주름잡았던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스페인 출신이라는 사실이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카를로스 3세가 18세기 후반 건축가 헤르모지야와 사바티니에 의뢰해 건립한 '산 카를로스 병원'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병원으로 기능을 다한 1965년 이후 건물은 한동안 논란을 겪으며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1977년 건축물의 역사적·미적 가치를 인정된 왕령에 따라 보존 결정이 내려진다. 6년간의 공사 끝에 1986년 전시·공연·도서관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 예술공간인 레이나 소피아 예술센터로 문을 열었다. 소피아 왕비는 현재 왕인 후안 카를로스의 부인이다.

지금도 미술관의 상징이 된 유리 엘리베이터가 완성된 1988년, 스페인 정부에 의해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992년 프라도 미술관 등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현대미술 작품들이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이 때 전쟁의 잔혹성을 고발한 피카소의 대표작 '게르니카'도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2005년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 장 누벨에 의해 실시된 미술관 증축 공사를 통해 미술관 전체 면적이 기존보다 60% 이상 늘어난 8만4천㎡로 확장됐다.

병원 건물 개조 1986년 문열어  
1900년~현대 작품 주로 전시  
강연·콘서트 등 부대행사 다양

스페인이 낳은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많은 관계로 이들의 대표작품 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까지 양적·질적 풍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미술관의 장점이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의 소장품은 총 2만여점으로 회화 4천여점, 조각 1천400여점, 드로잉 3천여점, 판화 7천여점, 사진 3천여점, 장식 미술 100여점, 영상 설치작품 40여점 등이 포함된다. 미술관은 특별전시를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명하고 있다. 한국 출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도 이 곳에서 특별전을 가진 바 있다.

상설전시는 구상과 비유, 큐비즘과 초기 아방가르드, 피카소와 게르니카의 배경, 초현실주의, 추상·팝아트 그리고 비유적 내러티브, 미니멀 아트와 그의 배경,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 등의 주제로 나뉘어 2층과 4층에서 진행된다. 2층은 2차 세계 대전 시기까지의 작품들, 4층은 전후(戰後) 시기를 다룬다. '피카소와 게르니카의 배경' 전시실은 특히 작품을 통해 반전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예술가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종군 사진 기자로 활동한 로버트 카파(Robert Capa·1913~1954)가 스페인 내전 때 찍은 작품들도 상당수 전시돼 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개관 당시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예술공간이었던 것만큼 미술관 이용방법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의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초·중·고교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강의,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수시로 열리며, 작가와의 대화, 콘서트, 연극, 무용, 각종 퍼포먼스 공연, 영화 상영 등도 마련된다. 또 마드리드 자치 대학과 공동으로 '현대미술과 영상 문화의 역사' 전공의 대학원 과정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 강의와 컨퍼런스 등을 제공한다. /camus@kwangju.co.kr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국립 미술관 전경. 미술관은 18세기 병원 건물을 개조해 1980년대 후반 개관했다. 20세기 현대미술 작품 2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전쟁 피해 뉴욕 현대미술관 임대... 스페인 독재 종료후 들여와

■ 피카소와 게르니카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파블로 피카소의 대작 '게르니카(Guernica)'(1937)가 있어 가능했다.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의 대부분이 '게르니카'를 보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의 한 전시실이 통째로 피카소와 '게르니카'에 할애된 것만 봐도 미술관 내 이 작품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게르니카' 원화 뿐 아니라 피카소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그렸던 스케치 수십여점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1936~1939) 때 독재자 프랑코를 지원했던 독일군의 게르니카 공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바스크 지방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 주민 1천500여명이 무차별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 즈음 스페인 공화국 정부로부터 파리 만국박람회의 스페인관 벽에 전시될 작품을 의뢰받았던 피카소

는 작품의 주제로 이 사건을 다루기로 하고 2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걸작 '게르니카'를 완성했다.

"그림(게르니카)은 벽을 치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에 대항하기 위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전쟁의 수단이다." 피카소는 자신이 남긴 말처럼 작품을 통해 전쟁의 참혹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나치 정권 관계자가 파리에 살던 피카소를 찾아와 "게르니카를 그린 것이 당신이나?"고 묻자 피카소는 "아니오...당신들이오"라고 답한 일화는 유명하다.

1937년 파리 만국박람회 후 '게르니카'는 유럽에서 순회 전시된 뒤 전쟁을 피해 미국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에 장기 임대됐다. 스페인인이 민주화되기 전엔 그림을 스페인에 들일 수 없었던 피카소의 유지에 따라 '게르니카'는 프랑코가 사망한 뒤인 1981년에야 스페인에 반환돼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걸렸으며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 피카소의 작품 '게르니카'를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1992년 현재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스페인에 전시되고 있다는 것은 스페인의 독재가 종료됐음을 알리는 상징이기도 하다. 피카소와 '게르니카'가 스페인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살바도르 달리 등 초현실주의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광주김재규정찰학원
김재규정찰학원의
총력 심화는
계속됩니다!
광주김재규정찰학원
070-7433-0584

월기반 JAVA
개발전문가 교육생모집
전익준비
계좌제 1인당 200만원 지원!
중원 IT 직업전문학교
223.0050

2009 여름다 12명 합격
광주학원기 대표 브랜드
13년의 역사와 전통
중·고·수 단과전문
국민명학원
072-9451

원어민 | : |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합니다
광주원어민사이드 특강진
070-7433-0584